

# 후보 따로 정당 따로 '교차투표'...야권 분열로 역대최다 전망

### 갤럽 여론조사 '따로 투표' 조짐 접전지 많은 수도권 영향 클 듯 국민의당 비례 목표치 2배 늘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선택을 따로 하는 이른바 '교차투표' 여부가 4·13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7대 총선부터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한다. 이때 'A당 소속 후보자'에 투표하면서 비례대표 투표는 'B당'에 표를 주는 것을 교차투표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의 경우 최대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교차투표 양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에 나선 국민의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사표(死票) 방지를 위해 지역구에선 당선 가능성이 큰 야권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는 선출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공천갈등에 실망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박빙 지역구 투표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하더라도 비례대표 투표는 다른 정당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호남에서도 유권자가 한 정당에 표를 몰아주기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달리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4년 전 19대 총선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에서 43.3%를 득표했다. 반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41.9%였다. 19만여명이 다른 정당을 찍거나 정당 투표를 포기한 것이다.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도 비례대표



**추추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7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동물시장 앞에서 열린 허영 후보 지원유세에서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득표율(35.7%)이 전체 지역구 득표율(37.9%)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정당 투표 중 상당수는 자유선진당이나 통합진보당으로 옮겨갔다. 선진당은 비례대표 득표수가 지역구 득표수보다 21만여표, 통진당은 90만여표 많았다. 즉, 110만여 명이 교차투표를 했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도 교차투표 조짐이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29~31일 1002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inesdc.go.kr) 게재) 결과, 투표할 후보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34%, 더민주 21%, 국민의당 8%, 정의당 3%였다. 이에 반해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은 새누리당 33%, 더민주 21%, 국민의당 15%, 정의당 7%로 집계됐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후보지지도는 낮지만, 정당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갤럽은 교차투표의 이유에 대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거나 ▲정당이 공정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라고 설명했다.

정치학계에서는 통상 교차투표 비율을 10% 내외로 보고 있으며 이번엔 수도권 접전지역이 많고 국민의당 변수가 있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애초 5명을 비례대표 안정권으로 예상했다가 최근 목표치를 10석까지 늘린 것도 이 교차투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15석 이상 확보를 노리는 더민주도 마찬가지로 영남과 충청, 강원지역 등 열세지역의 정당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약수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남양주시 진접농협에서 남양주에 출마한 표철수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3당 격전지 수도권 집중 공략

### 새누리 김무성 13곳 광복 행보

### 더민주 김종인 경기·강원도 유세

### 국민의당 안철수 동부벨트 강행군

여야 3당 지도부가 7일 4·13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격전지 수도권으로 일제히 출격, 표밭갈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주말과 휴일에도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초반빙승부가 펼쳐질 수도권에 전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화곡·가양역 지하철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며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마포갑·성북갑·성북을·강북갑·도봉갑·노원병·노원을·노원갑·중랑을·중랑갑 등을 분(分)을 쪼개가며 찾아가는 선거유세 강행군을 펼쳐 이날 하루만 총 13명의 소속 후보들을 지원했다. 또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지지층에게 투표를 독려할 전략을 논의하고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이날 동선도 수도권에서 시작했다. 오전에는 경기 하남 문학진 후보의 출근인사 유세를 지원하고, 남양주갑 조웅천·남양주를 김한정·남양주병 최민희 후보의 공동정책 공약 발표에도 참여했다. 이후 강원 춘천의 허영 후보와 풍물시장을 돌며 지역주민과 스킨십을 하고 원주갑 권성중·원주를 송기헌 후보 합동유세를 도왔다. 오후에는 충북

로 건너가 제천단양 이후삼·충주 윤홍락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청주지역 한범덕·오제세·도종환·변재일 후보 합동유세에도 힘을 보탤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수도권 중에서도 '동부벨트'에 집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지원유세를 벌였다. 특히 거대 양당이 과거 방식대로 장밋빛 공약과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제3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역설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선거 후반전에 접어든 시점에서 오는 주말과 휴일에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호남 상승세에 수도권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기존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와 무당층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 전략지역으로 서울 은평을과 관악갑 등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이들 지역을 포함해 몇몇 지역은 이번 주말이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 주말에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호남 출신 비례대표들은 7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비판하며 정당 투표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추혜선·윤소하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당 투표는 '민생제일 선포 야당'인 기호 4번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3번, 윤 후보는 해남 출신으로 4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 전국 3511곳 투표소...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

### 사전투표 어떻게

### 광주·전남 392곳 오전 6시~오후 6시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511곳에서 실시된다. 광주는 95곳, 전남은 297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평일이 아닌 주말과 휴일에 투표할 수 있고,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서 투표 참여가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시간은 8~9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 투표함은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각 지역별 선관위에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다가 선거일 당일 투표를 마치면 동시에 개표한다. 타 선거구 유권자의 경우 유권자가 사전투표용지를 우편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선관위가 이를 해당 선관위로 보내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

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권자 편의를 확대하고자 1층 사전투표소·승강기 이용 투표소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8~9일 홈페이지(www.nec.go.kr)의 '사전투표 진행상황' 코너를 통해 구·시·군별 투표율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날그날의 최종 투표율은 오후 6시 40분께 공개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2월말이후 허기없이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불법이며, 큰 산불로 번져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할 때 생기는 불씨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 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 소각행위, 이제부터는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  
GWANGJU CITY**